

2018년 11월 30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하락 마감 국제유가 급등과 트럼프의 협상 의지 표명은 긍정적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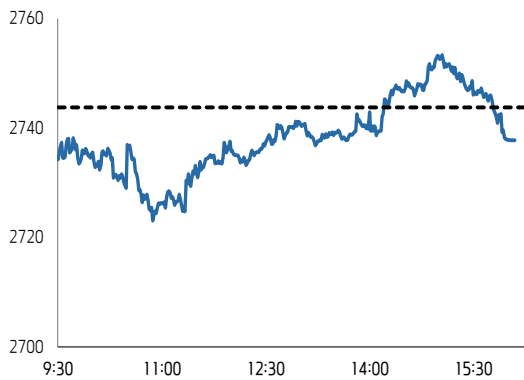
미 증시는 장 초반 피터 나바로가 정상회담에 배석 한다는 보도 여파로 하락.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분쟁 협상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유가 급등하자 낙폭 축소. 한편,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한 때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으나 장 막판 매물 출회되며 하락 마감(다우 -0.11%, 나스닥 -0.25%, S&P500 -0.22%, 러셀 2000 -0.33%)

미 증시는 ①미-중 무역분쟁 ②국제유가 ③FOMC 의사록 공개 영향을 받아 변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은 관련 소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 장 초반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알려진 대 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미국 무역정책국장이 미-중 정상회담에 배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여파로 하락폭 확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과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으나, 수입액 달러가 미국에 들어오고 있어 현재 상태도 좋다” 라고 언급.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지수는 하락폭 축소

한편, 국제유가가 급등한 점도 미 증시에 영향. 전일 국제유가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언론인 살인 사건에 사우디 왕세자가 개입한 증거는 없다” 라고 언급한 이후 50 달러 위협. 그러나 오늘은 러시아가 OPEC 과 함께 감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중 4% 가까이 급등. 12 월 6 일 있을 OPEC 정례회담에서 회원국들은 하루 100~140 만 배럴 감산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OPEC 과 접촉 중이며 필요할 경우 감산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자 상승

이와 더불어 연준이 11 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점진적인 금리인상’ 문구 수정 가능성을 표명한 점도 영향. 한편, 연준은 관세 및 기업부채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 특히 무역분쟁으로 농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발표. 이와 함께 2 명의 위원이 이미 중립금리에 도달 했다는 의견 표명하는 등 추가적인 금리인상 기조에 신중한 모습. 의사록 공개 이후 달러 및 국채금리 변화는 크지 않았으나 주가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14.10	+0.28	홍콩항셱	26,451.03	-0.87
KOSDAQ	695.48	-0.66	영국	7,038.95	+0.49
DOW	25,338.84	-0.11	독일	11,298.23	-0.01
NASDAQ	7,273.08	-0.25	프랑스	5,006.25	+0.46
S&P 500	2,737.80	-0.22	스페인	9,098.90	-0.04
상하이종합	2,567.44	-1.32	그리스	618.16	+2.50
일본	22,262.60	+0.39	이탈리아	19,159.60	+0.2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기술주 강세

JP모건(-0.79%), BOA(-1.37%), 웰스파고(+0.57%) 등 금융주는 연준이 12월 금리인상을 시사한 이후 낙폭이 축소되었다. 엑손모빌(+0.78%), 셰브론(+0.60%), 코노코필립스(+0.78%), EOG 리소스(+1.64%) 등 에너지 업종은 러시아가 감산 의지를 표명한 데 힘입어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상승 했다. 한편, 페이스북(+1.40%), 알파벳(+0.26%), 아마존(-0.25%), 넷플릭스(+2.16%) 등 FANG 기업들은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유입되며 투자심리 개선 영향으로 상승하거나 낙폭이 축소되었다.

암젠(+0.47%), 길리어드사이언스(+0.72%) 등 바이오업종과 화이자(+1.36%), 일라이릴리(+1.27%) 등 제약업종은 약가인하 정책 지연 기대감과 일부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했다. 퀄컴(+2.58%)은 애플(-0.77%)과의 법적소송이 끝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인텔(-2.37%)은 퀄컴과 애플의 소송이 끝나면 향후 퀄컴 칩을 애플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트위터(-4.37%)는 11월 8일 이후 1,830만명의 가입자가 트위터를 올리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급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64%	대형 가치주 ETF	-0.14%
에너지섹터 ETF	-0.22%	중형 가치주 ETF	-0.22%
소매업체 ETF	-0.58%	소형 가치주 ETF	-0.33%
금융섹터 ETF	-0.85%	배당주 ETF	+0.09%
기술섹터 ETF	-0.97%	변동성 ETF	+1.98%
소셜 미디어업체 ETF	-0.31%	대형 성장주 ETF	-0.10%
인터넷업체 ETF	-0.13%	중형 성장주 ETF	-0.22%
리츠업체 ETF	+0.12%	소형 성장주 ETF	-0.26%
주택건설업체 ETF	-0.76%	신흥국 고배당 ETF	-0.81%
바이오섹터 ETF	-0.05%	신흥국 저변동성 ETF	-0.55%
헬스케어 ETF	+0.33%	하이일드 ETF	+0.06%
곡물 ETF	+0.23%	물가연동채 ETF	+0.59%
반도체 ETF	-0.94%	Long/short ETF	+0.5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7.60	+0.59%	+0.37%	-1.96%
소재	339.66	+0.55%	+0.85%	+3.34%
산업재	601.72	-0.01%	+2.76%	+2.42%
경기소비재	847.71	-0.43%	+5.22%	+1.89%
필수소비재	571.54	+0.03%	+2.33%	+0.86%
헬스케어	1,085.17	+0.31%	+4.90%	+5.69%
금융	444.15	-0.82%	+2.23%	+1.90%
IT	1,177.37	-0.95%	+4.10%	-3.15%
커뮤니케이션	149.21	+0.36%	+3.80%	-1.11%
유틸리티	276.46	-0.15%	+1.27%	+1.50%
부동산	206.81	+0.08%	+1.38%	+4.2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증시 변화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1.00% MSCI 신흥 지수도 0.87%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950 계약)에 힘입어 1.05pt 상승한 275.35pt 를 기록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6.1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소식에 따라 금융시장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나 현재 관세율 인상 등을 유보하는 정도의 합의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일 중국 상무부가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라고 주장한 데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 라고 언급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대 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미국 무역정책 국장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배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은 부담이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가 유입되는 현재 상태도 나쁘지 않다” 라고 언급하는 등 여전히 무역분쟁 협상 타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 한다.

한편, 전일 중국 증시는 무역분쟁 불확실성과 함께 미국에 이어 영국, 독일 등이 화웨이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자 통신, 전기전자 업종 등이 하락을 주도 했었다. 이러한 중국 증시 하락 여파로 한국 증시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었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면 오늘도 한국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여전히 중국 증시의 변화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미국 10 월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지난달 발표치(mom +0.2%)는 물론 시장 전망치(mom +0.04%)를 상회했다. 개인 지출은 전월 대비 0.6% 증가하며 지난달 발표치(mom +0.2%)를 크게 상회 했다.

핵심 PCE 디플레이터는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쳤으며, 전년 대비로는 1.8% 상승에 그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다.

10 월 잠정 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2.6% 감소했다. 지속적인 주택지표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등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OPEC 과 함께 감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중 4% 가까이 급등했다. 12 월 6 일 있을 OPEC 정례회담에서 회원국들은 하루 100~140 만 배럴 감산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OPEC 과 접촉 중이며 필요할 경우 감산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주장한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달러화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좁은 범위안에서 등락을 보였다. 특히 파운드화가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부각된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점이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연준이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12 월 금리인상을 표명 했으나,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다만, 유로화와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자 달러화 강세폭은 제한 되었다.

국채금리는 핵심 PCE 디플레이터가 전년 대비 1.8% 상승에 그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졌다는 발표로 하락 했다. 한편, 연준은 FOMC 의사록을 통해 12 월 금리인상을 시사 했으나 관세 및 기업부채를 이유로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고 발표 했다. 그러나 국채금리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단기물은 낙폭을 소폭 줄였다.

금은 변화가 크지 않은 가운데 소폭 상승에 그쳤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4%, 철근은 0.33%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1.45	+2.31	-5.82	Dollar Index	96.790	+0.00	+0.08
브렌트유	59.51	+1.28	-4.94	EUR/USD	1.1388	+0.19	-0.13
금	1,230.40	+0.05	-0.28	USD/JPY	113.45	-0.20	+0.44
은	14.402	-0.37	-1.52	GBP/USD	1.2783	-0.33	-0.73
알루미늄	1,940.00	+0.41	-0.33	USD/CHF	0.9963	+0.22	+0.13
전기동	6,212.00	+0.19	-0.69	AUD/USD	0.7317	+0.15	+0.87
아연	2,470.00	+0.73	-4.34	USD/CAD	1.3286	+0.08	+0.73
옥수수	373.25	0.00	+0.13	USD/BRL	3.8526	-0.04	+1.27
밀	507.75	-0.73	+0.20	USD/CNH	6.9342	-0.09	+0.10
대두	887.25	-0.36	+0.48	USD/KRW	1119.20	-0.64	-0.89
커피	112.30	-1.40	-1.58	USD/KRW NDF1M	1116.10	-0.54	-1.14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024	-3.47	-3.84	스페인	1.505	-3.50	-13.00
한국	2.114	-3.80	-9.10	포르투갈	1.828	-3.70	-11.70
일본	0.082	-1.80	-1.80	그리스	4.253	-6.60	-30.50
독일	0.321	-2.80	-4.90	이탈리아	3.202	-5.20	-24.90